

로마는 비전을 수립한다 - 15번째

최종 시험: 짐승의 우상을 둘러싼 예언적 논쟁에 대한 각성

Jeff Pippenger

2024-09-03

우리는 지금 짐승의 우상의 시험기 가운데 있으며, 재림운동의 역사에서 첫 예언 논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2023년 7월, 천사장 미가엘이 소돔과 애굽이라 하는 그 큰 성의 거리에 쓰러져 죽어 있던 에스겔의 죽은 마른 뼈들을 깨우기 위해 강림하였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들은 성령의 부여주심으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다. 에스겔 37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족속으로 규정된 죽은 마른 뼈들을 주의 군대로 바꾸는 기별이 네 바람의 기별로 식별된다. 선지자 다니엘은 요한의 기록에 나오는 죽임당한 두 증인을 대표하며, 또한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있는 자들뿐 아니라 비유 속 슬기로운 처녀들도 대표한다.

밀러주의자들이 그 비유를 성취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그 비유에 나타나 있음을 깨달았다. 14만 4천도 자신들이 지체의 때에 있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처럼, 그들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로 상징된 바와 같이 자신들이 원수들의 땅으로 흩어졌음을 깨달아야 하며, 또한 느부갓네살의 은밀한 짐승들의 형상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예언적 시험이 제시된다. 거리에서 죽어 있던 두 증인은 부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에스겔의 죽은 뼈들은 예언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다. 다니엘은 모세와 예레미야의 글을 연구하던 중 자신의 흩어진 상태를 깨달아 깨어났다. 2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유적으로 자신들이 사형 칙령 아래 놓였다는 사실에 깨어났고, 이어서 숨겨졌다가 봉인이 풀린 예언의 빛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구출했다. 비유 속 처녀들은 한밤중의 '외침'으로 깨어난다. 밀러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도표의 수치들에서 손을 거두셨을 때 깨어났다. 이 여섯 증언 모두에서 죽은 자들이나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은 예언적 메시지다. 그 후 그것은 시험을 일으키며, 그 시험 과정이 끝날 때 두 부류가 드러난다.

이 구절들에 근거하면, 말세에 14만 4천이 깨어날 때 그것은 에스겔의 네 바람의 메시지이며, 레위기 26장에서 모세가 말한 일곱 번의 흩어짐이다. 그것은 대천사 미가엘이 가져오는 부활의 메시지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비밀스러운 꿈, 곧 짐승의 형상에 관한 메시지다.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시험을 받으며, 그 기름은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로 이해된다. 밀러파 신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 지목되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처음에 1843년을 예언하도록 이끌었던 동일한 증거가 사실은 1844년 10월 22일을 예언하고 있었음을 보았을 때 깨어났다. 이러한 맥락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 깨어날 때 그들은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예언적 시험의 메시지에 깨어나게 될 것임이 분명해진다.

이 모든 예언적 선들은 짐승에게 바치는 우상, 곧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표상된 예언적 시험의 기간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성취를 이룬다. 그 시험은 일요일 법령 때 처녀들에 대한 은혜의 시기가 마감될 때 끝난다. 그러므로 봉함이 풀린 기별을 이해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으로서 반복해서 제시되는 짐승의 우상 시험 과정은 이 모든 예언적 선들로 표현된다. 다니엘 12장에서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되는 것으로 표현된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통과한다. 그 세 단계는 성령께서 가져오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의 단계들이다. 그 세 단계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이다. 그 세 단계는 또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에게서뿐 아니라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세 히브리 청년이 겪은 경험에도 나타난다. 거기서 그들은 먼저 식이 시험을 통과했고, 다음으로 시각적 시험을 통과했으며, 마지막으로 북방 왕—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이 준 세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모든 학문과 지혜에 관한 지식과 재능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정해 둔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려갔다.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왕이 그들에게 물어 본 모든 지혜와 총명의 일에서, 그들은 그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열 배나 뛰어났다. 다니엘서 1:17-20.

다니엘과 세 히브리 청년에게 있었던 세 가지 시험 중 마지막 시험은 느부갓네살이 시행한 시험이었고, 이로써 다니엘과 세 히브리 청년이 예표하는 마지막 예언적 시험이 바벨론과 관련됨을 보여 준다. 느부갓네살은 왕이었고, 이사야서 7장 8-9절은 왕, 한 나라의 수도, 그리고 '머리'가 서로 바뀌 쓸 수 있는 상징임을 확립한다. 그 '머리'는 마지막 때 현대 바벨론의 머리를 나타낸다. 그 마지막 때의 '머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로, 그녀의 이마에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기록되어 있다.

십사만 사천의 마지막 예언적 시험은 마지막 때 현대 바벨론의 '머리'에 대한 올바른 또는 잘못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그들의 마지막 시험에는 또한 현대 바벨론과 현대 로마가 서로 바뀌 쓸 수 있는 상징임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며, 그러므로 현대 바벨론의 '머리'는 두 상징 중 어느 것을 말하든 같은 '머리'인데, 이는 그것들이 서로 바뀌 쓸 수 있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한 수장—곧 교황권—아래에서, 사람들은 그의 증인들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로 연합할 것이다. 증언, 7권, 182.

다니엘과 세 친구는 최후의 예언적 시험, 곧 그것은 항상 예언에 대한 시험인데, 그 시험이 로마 문제를 둘러싼 시험임을 보여준다. 이는 말세의 우두머리가 교황권이며, 그 교황권은 바벨론의 첫 통치자인 느부갓네살로 예표되었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직접 시험했기 때문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표하는 그 논쟁은, 주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고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 1843년 도표에 나타난 대로, 재림운동의 기초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논쟁으로도 미리 보여졌다. 1843년 도표에 제시된 그 논쟁은 다니엘 11장 14절에서 그 이상을 확립한 세력이 누구인지, 곧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지 이교 로마인지 식별하는 문제에 근거해 있었다.

마지막 때의 역사에서 144,000명은 그들의 예언적 이해에 대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적 이해는 최후의 시험이 본질적으로 예언적 성격을 지님을 뒷받침하는 여러 예언의 계열에 의해 확립된다. 그 시험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두 부류의 예배자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에서처럼, 시험은 새로운 예언의 빛의 봉인이 풀릴 때 시작되며, 첫 번째 시험은 그 메시지를 먹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이다. 그 시험은 다니엘이 "정결하게 함"으로 나타났고, 다음 시험을 다니엘은 "희게 함"이라고 불렀으며, 그 과정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인 "연단함"에서 끝났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에서 두 부류가 "연단"되며, 그때 그들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난다.

다니엘서 1장은 마지막 시험을 직접 밝히며, 따라서 다니엘은 '짐승의 우상의 형성'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해야 할 시험'을 지목하고 있는데, 그 시험은 '그들이 인침을 받기' 전에도, 또한 임박한 일요일 법령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도 통과해야 한다.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시험은 삼중 연합의 예언적 구조를 이해하는가 하는 예언적 시험을 수반한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수많은 예언적 증언에 근거해 확립된 특정한 예언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 때에 삼중 연합이 하나의 예언적 권세로 결집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곧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말세에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단순하면서도 복합적인 예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바울의 '불법의 사람'에 대한 증언이다. 바울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예언적 관계를 다루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예언적 관계"가 두 부류의 경배자들을 드러내는 주제임을 밝힌다.

한 부류는 "이방 로마와 교황 로마의 예언적 관계"라는 진리를 사랑하고, 다른 부류는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강한 미혹을 받는다. 바울이 제시한 이방 로마와 교황 로마의 예언적 관계는, 그 두 권세의 관계와 또한 그 두 권세와 미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많은 예언적 본문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교 로마는 용이고, 교황 로마는 짐승이며, 미국은 거짓 선지자다. 아합은 열 왕을 거느리는 용 같은 왕으로, 창녀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은 이중의 거짓 선지자 집단을 다스렸다. 남자 예언자들은 바알의 예언자들이었고, 수풀의 제사장들은 여신 아스다롯을 상징했다. 이 둘은 함께, 여제사장들과 남자 예언자들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말세의 거짓 선지자를 전형화한다.

그 용은 아합으로,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을 상징하며, 여덟 왕국 중 일곱째 왕국이다. 여섯째 왕국은 미국, 곧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이며, 일곱째 왕국은 열 왕, 유엔, 용의 권세이고, 여덟째 왕국, 곧 일곱에 속한 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다섯째 왕국으로서, 여덟째이자 마지막 왕국인 짐승으로 부활한다. 미국이 그를 위한 형상과 그를 본뜬 형상을 만들고, 그 뒤로 온 세상도 그렇게 한다.

다니엘서 1장은 성경에서 표상된 로마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최종 예언적 시험을 밝힌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이 최종 예언적 시험이,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사이의 예언적·정치적 관계로 표상되는 현대 로마의 구조에 관한 빛을 포함한다고 밝힌다.

다니엘서 2장은 마지막 때에 봉함이 풀려 십사만 사천을 시험하는 한 비밀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2장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 봉함이 풀려 그들을 시험하게 되는 예언적 비밀은 짐승들의 형상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비밀스러운 꿈으로, 이는 십사만 사천을 위한 마지막 시험을 가리키며, 화이트 자매가 기록한 바와 같이 "짐승의 형상을 세우는 것"이다.

다니엘서 2장이 제시하는 시험은 죽음의 위협 아래 놓여 있다. 말세의 예시로서,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강한 미혹'을 지적한 바울의 가르침을 확증한다. 다니엘의 역사에서는 그의 깨달음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구했지만, 마지막 때의 최종 시험 이후에는 더 이상의 유예기간이 없다.

우리가 상징으로서의 로마를 둘러싼 논쟁에서 확인한 모든 측면은 지금 진행 중인 논쟁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제공한다. 일요일 입법 운동이 지금 어둠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다가움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낮의 자녀인 영혼은 매우 적으며, 낮의 자녀가 아닌 이들은 유예의 시간의 모래가 빠르게 다해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는 마지막 움직임들이 신속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화이트 자매가 지적한 그 맥락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3년 7월, 미가엘께서 자신의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내려오셨지만, 그 군대에 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취되어야 하는 예언적 사역이 있으며, 그 사역은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고 있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예언적 사역에는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일이 포함된다. 예언 연구자는 현재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미국에서 짐승의 형상을 형성시키는 종교적·정치적 요인들이 진행 중임을 알아야 한다. 예언 연구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대로 짐승의 형상이 예언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그는 또한 짐승의 형상이 미국에서 형성되어 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이 십사만 사천 안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는 말세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에서 '한밤중 소리' 기별이 전개되던 때—그 비유의 지체하는 때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고, 따라서 자신들이 바로 그 처녀들이라는 사실에 깨어났던—밀러주의자들과 평행을 이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 모두가 2023년 7월에 전개되기 시작한 예언적 시험의 일부이다.

"줄 위에 줄"로 재림 역사에서 일어난 로마를 둘러싼 각각의 논쟁은 마지막 날들에 반복되는 거룩한 역사였다. 로마를 둘러싼 최종 논쟁은 2023년 7월에 도착한 메시지에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나기를 거부한 데 따른 직접적인 결과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깨우실 것이다. 다른 수단들이 실패하면, 이단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그들을 체질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것이다. 주께서는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부르신다. 이때에 합당한 귀한 빛이 왔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로서, 우리 눈앞에 닥친 위험들을 보여 준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들을 지극히 엄밀하게

검토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의 모든 관련된 측면과 입장을 철저하고 끈기 있게 탐구하기를 원하신다. 믿는 이들은 무엇이 진리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추측과 모호한 생각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시험의 때가 오고 그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 공회 앞에 서게 될 때, 그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한다.

논의하라, 논의하라, 논의하라. 우리가 세상에 제시하는 주제들은 우리에게 살아 있는 현실이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의 근본 조항으로 여기는 교리를 옹호할 때에는 전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논증을 결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논증은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데는 소용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존중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장 면밀하고도 철저한 검증을 견뎌낼 수 있는 건전한 논증을 제시해야 한다. 스스로를 논객으로 훈련해 온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할 큰 위험이 있다. 반대자를 만날 때에는, 단지 신자에게 확신을 주려 하기보다, 그의 마음에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노력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지적 발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더 큰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철저하고 끊임없이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각자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어떤 빛줄기라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깨어 살펴야 한다. 우리는 진리의 첫 빛남을 붙잡아야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함으로써 더 분명한 빛을 얻어 다른 이들 앞에 제시할 수 있다. 증언. 제5권, 708쪽.

밀러 시대의 개신교도들은 문법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했고, 14절에 있는 "also"라는 단어를 무시하는 길을 택했다. 그러나 그 단어는 문법적으로, 14절이 속한 구절들에 묘사된 사건의 흐름 속에 "네 백성의 강도들"이 새롭게 도입되는 세력을 가리킨다는 것을 규정한다. 유라이어 스미스도 똑같은 일을 했다. 그는 36절의 "북방의 왕"과 이어 40절의 "북방의 왕"이 31절 이래로 줄곧 주제가 되어 온 바로 그 "북방의 왕"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법적 증거를 무시했다.

오늘날 미국이 "강도들"이라고 가르치는 이들은, 교황권과 미국을 말세의 두 주요 박해 세력으로 지목한 화이트 자매의 한 구절을 끌어와, 화이트 자매가 유럽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세계"라는 표현이 사실은 과거 역사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도록 문법을 왜곡한다. 그러나 그 본문의 문법은 이러한 가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며, 그 본문에서 화이트 자매가 "구세계"를 사용하는 방식은 그녀의 다른 저술들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과도 일치한다. 또한 그녀가 그렇게 사용할 때, 유럽과 아메리카를 구분하기 위해 "신세계"와 대비하여 "구세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역사학자들의 용례와도 일치한다.

구대륙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신대륙의 배도한 개신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이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대할 것이다. 대쟁투, 615.

문법적으로 "will pursue"라는 표현은 "구세계"와 "신세계"로 대표되는 두 세력이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를 "감행할" 것임을 가리키며, 이 문장을 "구세계"를 과거 역사로, "신세계"를 마지막 때로 지칭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잘못이다. "줄 위에 줄"에 따라, 로마의 모든 옛 논쟁들은 마지막 때의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깨어날 때 짐승의 우상 시험이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의 올바른 규명이 드러나는 환경을 포함할 것임을 알려준다. “약탈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1843년 개척자 도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예언의 신의 권위로 입증된 기초적 진리이다. 이는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들의 최종 시험에 깨어날 때, “약탈자들”이라는 주제가 기초적 진리들과 예언의 신에 대한 최후의 공격을 또한 대표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